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활용의 인식론적 고찰

-문자 이해에서 이미지 경험으로-

김영래*

1. 서론: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¹⁾

1999년 미국성서공회는 “성경의 미래화: 내일의 대중을 위한 성경”(Futuring the Scriptures: The Bible for Tomorrow’s Publics)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열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성경의 매체적 외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²⁾ 물론 이 심포지엄에서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세계화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졌지만, 사실상 주요 관심사는 새로운 전자 미디어 문화 속에서 여전히 인쇄 매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성경의 매체 유효성에 대한 재고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 심포지엄이 열리기 두 해 전 이미 폴 소크업(Paul A. Soukup)과 로버트 하지슨(Robert Hodgson)은 *From One Medium to Another: Communicating the Bible Through Multimedia*³⁾라는 편저를 통해 성경의 매체 변화에 대한 요청과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어찌 보면 이러한 관심과 연구는 그다지 놀라운 것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소위 오늘날 의사소통의 문화는 문자의 비신화화(Demystifying the Words)⁴⁾라는 방향으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월터 옹(Walter J. Ong)은 읽기와 쓰기와 같은 전통적 형식의 문자해독은 자신이 이룬 지은 “이차적 구전”(secondary orality)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자이해 방식의 등장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⁵⁾ 새로운 문자해독 방식의 출현은 전자영상 매체와 인터넷 등의 정보전달 기술의 발달로 의사소통의 다매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교육학

1)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2) American Bible Society, *Futuring the Scriptures: The Bible for Tomorrow’s Publics*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n. d.) [Report on symposium of the same title on February 6, 1999, at Bible House New York City].

3) Paul A. Soukup and Robert Hodgson, eds., *From One Medium to Another: Communicating the Bible Through Multimedia* (Kansas City: Sheed & Ward, 1997).

4) Robert M. Fowler, Edith Blumhofer, and Fernando F. Segovia, *New Paradigms for Bible Study: The Bible in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5.

5)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New York: Methuen, 1982).

체화와 동시적 편재성(simultaneous ubiquity)이 보편화를 이루어 놓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의 결과는 비문자적 매체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 속으로 용해되는 문자의 변형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서 글과 이야기는 더 이상 종이나 책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소리와 영상(이미지)으로 탈바꿈 내지는 이들과 연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대한성서공회는 2004년 새로이 번역된 한글 성경에서 551장의 삽화를 포함한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을 제작하였다. 본 성경의 출판에 대하여 대한성서공회는 “성경 본문과 함께 실린 영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독자들은 성경 말씀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이 성경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읽는 재미를 느껴 말씀에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⁶⁾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경험”이라는 성경 읽기 형태와 “젊은 세대”라는 새로운 매체 시대의 독자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 물론 멀티미디어가 보편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문자 형태의 성경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미래의 독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기술적 의미의 멀티미디어화에 앞서 의식적 멀티미디어화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매체문화의 핵심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논의의 전개에 앞서 기술적 멀티미디어화(multimedia technology)와 의식적 멀티미디어화(multimedia consciousness)에 대한 문제를 간략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소고의 논제를 분명히 밝히고 구전에서 문자로, 문자에서 전자 미디어로의 매체 변화가 단순한 진화과정이라 아니라 매체문화의 다중화라는 의사소통 형태의 본질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기술적 멀티미디어화는 의사전달의 매체가 다중적 통로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식적 멀티미디어화는 매체기술과 직접적 상관 없이 의사소통 자체가 다중적 즉 인간의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전달되고 수용되면서 형성되는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상 의사소통은 본질적으로 다중적이다. 말, 글, 표정, 소리, 행동 등 의미의 전달을 위해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전달 매체의 축소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한 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

6)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출시” KBS Publishing Experience (n. d.). 미출판 문서. 기존의 흑백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이 출시된 바 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을 검토하면서 삽화의 컬러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미국성서공회와의 협의를 거쳐 컬러화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른 매체의 특성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자면 구술에서 문자로의 변화는 구술이 가지는 직접성과 친밀성이라는 의사소통의 한 축을 포기하면서 전달의 확장이라는 이점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전 매체의 특성은 소멸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잔존 또는 복원되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이를테면 구전으로 전달하던 이야기가 문자로 옮겨진다고 해서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 삼자의 음성으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본 소고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성경의 전달과 해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⁷⁾

오늘날 성경을 포함한 다수의 문자매체가 다중적 매체로 변형되는 것은 새로운 매체의 기술적 또는 문화적 우월성의 구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중적 의사소통의 성향이 기술적으로 지원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소리, 글, 그림 등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본래적 의사소통이 가지는 풍성한 본질을 복원시키는 바람직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새번역』 성경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은 비록 기술적 멀티미디어화에서는 첨단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매체의 다중화를 통해 의사소통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노력이 가져다주는 성경 읽기의 인식론적 변화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대한성서공회의 『새번역』 성경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을 “문자 이해에서 이미지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인식론적 탐구를 시도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 대상의 성경에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공한 애니 발라톤(Annie Vallotton)의 이미지의 특성과 대한성서공회의 컬러화 작업을 평가한 뒤, 성경 읽기에 있어서 매체와 인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문자에서 이미지로의 변화가 이해에서 경험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통해 대한성서공회의 『새번역』 성경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하려고 한다.⁸⁾

2. 성경과 일러스트레이션

역사상 최초로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이 등장한 것은 8세기 카롤링거

7) Thomas E. Boomershine, “Religious Education and Media Change: A Historical Sketch,” *Religious Education* 82 (Spring 1987), 269-278.

8) 본 주제에 대한 제한된 연구 사례와 성서 출판에 대한 연구자의 부족한 이해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한 이유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Carolingian)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 시각적 효과가 첨부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는 문단의 첫 글자에 문양(illuminated initial letters)을 입히는 형태였다. 보통의 경우 단순한 도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고, 때에 따라서는 본문의 이야기와 관련된 이미지를 도안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두 번째 형태는 성경의 매 장마다 테두리에 장식을 도안하는 것(decorated borders)이었다. 여기에 사용된 도안은 꽃이나 장식 글씨, 또는 동물의 형상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보통 일러스트레이션은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세 번째는 세밀화(細密畫) 또는 소화상(小畫像)의 경우(miniature pictures)로 본문의 장면을 묘사하는 형태였다.¹⁰⁾ 로마네스크 성경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은 상당히 훌륭했으나 단순한 장식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 7, 8세기까지만 해도 본문 자체가 더욱 중요했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은 일종의 장식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¹¹⁾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성경 본문 내용의 묘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때로는 일러스트레이션 자체가 내용 전달에 있어서 본문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240년경 루이 9세를 위해 제작된 *The Bible Moralisée*는 5천여 개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¹²⁾ 사실상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자 계층을 위해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 적절한 인용구나 설명이 첨부된 성경은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독자로 하여금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성경은 13세기 독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성경의 이해를 위해 첨가된 일러스트레이션은 목판으로 새겨져 성경의 인쇄 시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다. 이후 15세기와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일러스트레이션 목판이 사용된 성경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이미지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와 그림에도 자주 복제되었다. 이로써 이 일러스트레이션들은 중세교회에서 시각적 국제공용어(the visual lingua franca)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¹³⁾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에 의해 처음으로 인쇄된 성경에 일러스트레이션은

9) 750-887년 서유럽을 통치한 프랑크 왕조

10) Bruce M. Metzger and Michael D. Cooga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298-299.

11) 현재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7세기 린디스파네(Lindisfarne) 복음서로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8세기 것으로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 있는 켈스(Kells) 성경이 있다. Ibid.

12) 이 성경은 옥스퍼드 대학의 보들리 도서관, 대영박물관, 국립도서관에 각각 분산되어 소장되어 있다. Ibid.

13) Ibid.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인쇄본에서는 테두리에 장식을 하거나 문단의 첫 글자를 아름답게 도안하여 만든 것이 발견되었다. 그 후 점차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첨가되기 시작했으며, 16세기에 이르러 라파엘(Raphael), 도레(Gustave Doré), 루오(Georges Rouault), 샤갈(Marc Chagall) 등 유명화가들의 그림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¹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이 번역하여 출판한 성경에 일러스트레이션을 포함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성경의 내용을 철저히 그리고 정확히 묘사했을 때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윈체스터가 초기 일러스트레이션 성경과 화가들의 배출에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별히 승전과 창조를 묘사한 일러스트레이션은 놀라운 정도로 정교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영국은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영국 자체가 심미적인 측면에 있어서 주변 국가들보다 뒤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영국 청교도들이 형상을 만들어 우상화한다는 생각에서 성화상 제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660년 찰스 2세의 복위 이후 영국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의 출판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¹⁵⁾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1750년 이전까지 영국에서 제작된 성경에 일러스트레이션은 성경과 분리되어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킹제임스판 성경의 저작권이 왕실에 있었고,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은 화가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 왕실의 성경과 구별하기 위해 *The Family Bible* 또는 *The Royal Universal Family Bible*(1780-82)이라는 이름으로 설명과 일러스트레이션이 첨가된 성경이 출판되었다.

미국에서는 1782년 12월판의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이 첫 선을 보였으나 상업적으로 실패하였다. 그로부터 9년 후 1791년 12월 이사야 토마스(Isaiah Thomas)가 출판한 가정용 성경이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으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 후 19세기에 이르러 주일학교의 부흥이 가시화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의 필요성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898년 영국의 작가 샬롯 용(Charlotte M. Yonge)에 의해 만들어진 *Child's Bible Reader*라는 동화책의 형식을 띤 성경이 등장했다. 이 성경은 테네시 주 내쉬빌의 사우스웨스턴 출판사에서 제작되었는데 당시 미국 남부의 가정마다 이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각광을 받았다. 이와 함께 월터 드 라 마레(Walter de la Mare)의 *Stories from the Bible*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어린이 성경이었다. 이러한 어린이 성경은 동화책의 형식을 취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어린이들의 관심을

14) Ibid.

15) Ibid.

끌어내기 위해 일러스트레이션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밖에도 E. 보이드 스미스(E. Boyd Smith)의 *The Story of Noah's Ark*(1905)와 도로시 래드롭(Dorothy Lathrop)의 *Animals of the Bible*(1937)은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의 성공작으로 꼽히는 것들이다.¹⁶⁾

이와 같이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초기 단순한 장식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의미 전달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더 나아가 심미적 경험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 기능을 확대시켜왔다. 본 소고의 후반부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매체의 변화 또는 새로운 매체 추가는 본래적 의사소통 즉 의미전달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일러스트레이션의 첨가를 통하여 의미전달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은 단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감각을 통해 이해와 경험을 하는 전 연령층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에 집중되었던 것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이성적 이해가 감성적 경험의 우위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연령층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창조적 일러스트레이션의 등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창조적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음에 언급되는 애니 발라톤(Annie Vallotton)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애니 발라톤(Annie Vallotton) 일러스트레이션과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의 컬러화

성경 일러스트레이션은 회화적 양식에서 만화기법의 캐리커처(caricatur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일차적 목적은 본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묘사하여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시각화된 이미지는 단순히 이해의 확장 뿐만 아니라 글로서는 전달되지 않는 심미적 경험을 촉진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채택한 애니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매체의 개방적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니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전 세계의 성경 독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 미국성서공회가 출판한 *Today's English Version*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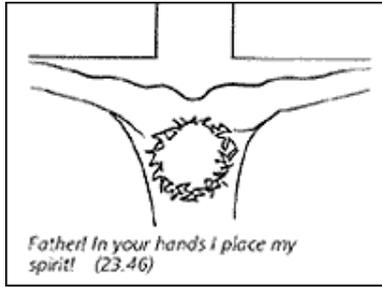
16) Ibid., 109.

그의 작품이 소개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라톤¹⁷⁾은 스위스 태생의 화가로 혁신적인 방식의 라인드로잉(line drawing)으로 성경의 내용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프랑스성서공회(프랑스성서공회)가 출판한 복음서에 포함 된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미국성서공회의 담당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964년 초 유럽을 방문한 유진 A. 나이다(Eugene A. Nida)박사는 발라톤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친 후 그 해 5월 7일 미국성서공회 이사들의 허가를 얻어 출간 예정으로 준비 중이던 마가복음서에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첨가하기로 결정하고 그 뒤로 *Today's English Version* 전체에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넣기로 하였다. 발라톤의 자신의 예술에 대한 철학을 “단순한 선의 사용, 선의 사용의 최소화, 그리고 최대의 표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발라톤은 “현대 문학은 매력적이고, 오색찬란해야 한다. 그래야 독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읽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견해에 의하면 전통적 형태의 성경은 작은 글씨체로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고, 그 언어는 무질서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발라톤은 성경은 반드시 새로운 얼굴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오늘날의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했다. 그래야만 성경의 가르침이 독자들의 삶과 경험에 관련을 맺고 유용하게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공통적 움직임으로 묘사된 발라톤의 단순한 선은 글로 쓰여진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라,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본문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¹⁸⁾

발라톤이 이야기하는 최소의 선으로 최대의 표현이라는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좋은 실례는 누가복음서에 포함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다. (그림 1)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가 앞으로 숙여져 있고, 그 밑으로 한 줄로 이어진 어깨선이 보인다. 그리고 그 위편에 두 선으로 그려진 모서리는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다. 일면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어떤 영화의 장면보다 예수님의 수난을 비참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선으로 심도 있는 의미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발라톤이 가진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성이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상력을 개입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17) 발라톤은 저명한 스위스 개신교의 작가 벤자민 발라톤(Benjamin Vallotton)의 딸로 로잔에서 출생하였다.

18) Peter J. Wosh, “Today’s English Version and the Good News Bible: A Historical Sketch,” <http://www.bibleresourcecenter.org/vsItemDisplay.dsp&objectID=53959739-C885-40DB-89882562B8FB37CD&method=display> (2005년 6월 21일 접속).



(그림 1)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에 포함된 551장의 장면들은 각각 발라톤의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그의 작품에는 이전의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볼 수 없는 진솔한 묘사가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욥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라는 부분을 표현한 욥의 절규 장면이다.(그림 2)



(그림 2)

욥이 불끈 쥐 손으로 땅을 내려치려는 장면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단지 뼈에 사무치는 통한뿐만 아니라 공의를 저버린 것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욥의 인간적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상상력이 넘치는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성서공회는 색을 입히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2003년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 출판을 검토하고 미국성서공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치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색을 지닌 일러스트레이션으

로 시각적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어냈다.¹⁹⁾ 색을 입은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히 단색은 단조롭고, 다색은 흥미롭다는 차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된 이야기에 심미적 경험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색이 전해주는 감성적 메시지는 시각 경험의 깊이와 폭을 확장시켜주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색채화 작업에 사용된 색감이 원색 대신에 파스텔조의 부드러운 색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색채의 심리학적 측면을 고려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강렬한 원색은 상상력을 감소시키고, 반면 부드러운 중간색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증진시킨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²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은 글에서 단색 그림으로 단색 그림에서 다색 그림으로 또 한번의 생명력을 얻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4. 성경 읽기에서의 매체와 인식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이 성경 읽기에 있어서 어떠한 인식론적 영향을 주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된 매체에 따라 초래된 인식방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체 변화와 해석 체계²¹⁾

의사소통의 지배적 매체	성경의 매체	해석학적 체계
구술	음성/시각	묘사에 의한 개작/해석
필사본	낭독/대중적	의미의 중심으로서의 사상: 알레고리적 해석
인쇄	인쇄/낭독/개인적	성경본문 중심의 의미: 문자적/상징적 해석
무성 인쇄(silent print)	무성으로 문서 연구	참고자료로서의 의미: 역사적 사실과 신학적 사상, 역사적 해석
전자	음성/시각	

19)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20) 참조. Frans Carlgren, *Education Towards Freedom* (East Grinstead, England: Lanthorn Press, 1993, 65-68).

21) Boomershine, "Religious Education and Media Change: A Historical Sketch," 277.

위의 표에서 드러나듯이 매체의 변화는 해석의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다. 약술해보면 구술은 전달자와 수신자의 물리적 대면을 통하여 음성과 시각 등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전달자의 묘사 양식이 내용의 현실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사본의 경우 내용물의 이동성이 보장되지만 여전히 제한된 독자와 청자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낭독되면서 구술적 전달의 양태를 보존하고 있었다. 때문에 낭독자의 해석이 내용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성경 읽기가 개인적 차원으로 옮겨지면서 내용 파악에 있어서 주로 성경본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졌다. 이때부터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무성 인쇄는 매체로서의 인쇄가 광범위하게 보편화된 것을 의미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성경은 더욱 더 객관적인 자료로서 취급받게 되고, 신앙형성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증거, 신학적 사상의 근거, 또는 역사적 해석의 자료가 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전자매체로의 매체변동에 있어서 아직까지 총체적 변화가 성경 읽기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외형상으로 보면 상당부분 구술매체의 문화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복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²⁾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오늘의 매체 문화는 종합적 삶의 경험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각경험의 다중성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적, 그리고 공동체적 삶을 조장하는 양상이 바로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사소통의 매체는 단순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다.

성경 읽기의 유형을 인식론적 관점²³⁾에서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한 경전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이는 성경의 내용에 대한 이해나 해석보다는 성스러운 신앙의 절대적 대상으로 단순한 낭독과 암송만이 유일한 성경 읽기의 방법이 되었던 것이다. (2)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고 난 다음 비로소 성경은 이해

22) 닐 포스트만(Neil Postman)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네 단계로 나누고 있다: 구술, 필기, 인쇄, 커뮤니케이션 혁명. Neil Postman, *Television and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1), 5-13.

23) 인식론이 관심을 갖는 앎(knowing)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 활동이다. 인간은 앎을 통해 대상(objects)을 인식하고,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앎을 통해 비로소 지식(knowledge)의 형성과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앎의 방법의 차이는 형성된 지식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앎의 결과물로서의 지식을 논의하기 전 앎의 방법에 관한 이해, 즉 인식론에 대한 전이해를 갖는 것은 지식의 정당성(legitimacy)을 획득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의 신앙적 입장을 지원하는 방편으로 읽혀졌으며, 각 교단과 교파는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는 근거로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다. (3) 그리고 근대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간 이성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면서 이념의 정당성을 제공하려는 의도 하에 해석이라는 성경 읽기 방법이 채택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성경 읽기 방법은 정치적 이념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성경의 해석은 전체성을 담보로 부분적 적용성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성경 읽기 방법의 변화

	성경에 대한 입장	성경 읽기 방법	성경 읽기의 특성
1	신성한 경전 The Sacred Book	암송 Memorization	절대성 Absoluteness
2	교리의 근간 The Roots of Doctrine	이해 Understanding	합법성 Legitimation
3	이념의 근거 The Basis of Ideology	해석 Interpretation	적용성 Applicability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어떠한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느냐에 따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읽기의 범위와 방법의 “차이”는 인식론적 검증의 절차를 거쳐 합법성을 획득해야 하는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앎의 방법과 지식의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는 성경 읽기의 효과와 가치, 그리고 정당성의 재고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의사소통 방식의 다변화로 인한 앎의 효율성 증가의 측면이다. 오랫동안 앎의 형성과 지식의 전달에 있어서 문자는 지배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문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매체가 출현 또는 복원되면서 다중매체의 효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실 대한성서공회 『새번역』 성경 컬러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처럼 시각과 청각을 통한 전달방법은 내용의 파악과 보전에 있어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매체적 소통은 심미적 효과를 통해 의미의 심층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고려되는 것은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복합적 존재로 대상을 다층적으로 경험한다는 전인적 앎(holistic knowing)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즉 인간의 앎은 이성적 논리적 작용 이외에 다양한 양식으로 수행된다는 사실이다. 전뇌학습(the whole brain learning)이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이론에서 제시하는 “통

전성”을 근간으로 한 이른바 통전적 앎(holistic ways of knowing)은 전체적(integrative)이고 포괄적(comprehensive)인 지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5. 문자에서 이미지, 이해에서 경험

앞서 언급한 대로 통전적 앎이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단지 인지적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감정을 지닌 복잡한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 지·정·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사실이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 지적작용을 제외한 인간의 활동은 객관성이 결여된, 즉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도외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근대 과학의 출현과 더불어 신체적, 감성적 앎과 같은 주관적 경험들은 정당한 지식을 도출해 낼 수 없는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전인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해 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해 아래서 인간은 스스로 정보를 창조하거나 재구성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결국 지식은 기성화 된, 최종적, 완성된, 자체로 유일한 것이며, 앎에 있어서 앎의 주체자는 지식의 구성에 관여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체제이론(systems theory)의 등장으로 일정한 위치에 있는 조각의 정보가 다른 조각의 정보와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인지지도(cognitive map)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조직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구성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보의 조각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앎은 정보의 체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개인의 활동으로 간주되며, 인간은 활동적 정보처리자(an active information processor)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²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간은 단순한 정보처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신비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복잡하고 반성적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²⁵⁾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다양한 앎의 통로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각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종합하며, 재창조하는 능력은 앎의 활동에 전인적 참여를 통해 발휘 된다는 것이다.

24) Ron Miller, ed., *The Renewal of Meaning in Education: Responses to the Cultural and Ecological Crisis of Our Times*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3), 112.

25) 제롬 브루너(Jerome Bruner)는 자아를 텍스트 속에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반성적 개입”(reflective interven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Jerome Bruner,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132.

그러므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n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s), 다니엘 골만(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로버트 콜즈(Robert Coles)의 도덕지능(moral intelligence) 이론은 인간의 지능과 앎의 방법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은 종합적이며 포괄적 앎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비드 콜브(David Kolb)가 지적한 대로 사람마다 정보의 수집과 해석을 위해 채택하는 다른 방법-학습양태(learning styles)²⁶⁾-들은 앎의 방법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²⁷⁾ 그러므로 전인성은 다양한 방법의 앎을 통해 회복되어지며, 지식과 앎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파편화 된 지식(fragmented knowledge)을 전체적 지식(holistic knowledge)으로 만든다는 점은 통전적 앎의 인식론적 가치를 밝혀주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의미에서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을 통한 성경 읽기는 문자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미지의 경험으로 독자들을 인도하고, 이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글보다 이미지가 더욱 큰 영향을 끼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레골 웨달(Gregor T. Goethals)이 역설한 바 있듯이 특별히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는 권위의 상징과 공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²⁹⁾ 때문에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에게 영상적 이미지로 전달되는 내용은 문자보다 더욱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마가레트 마일즈(Margaret R. Miles)는 “이미지는 [이것을 경험하는] 이의 삶의 상황과 태도와 가치가 개인화 되고 무의식적 선택에 적합하게 된 메시지의 관심을 가진 인지를 허락한다”³⁰⁾고 하였다. 이 말은 이미지가 각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며 그 해석의 경험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연관을 가지는 생명력 있는 지식 경험으로 발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전적 경험이 요구되는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미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26) David Kolb,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4).

27) Frances K. Stage, “Setting the Context: Psychological Theories of Lear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2, 227-235.

28) 로버트 키건(Robert Kegan)은 성인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정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은 그들의 사고, 감정, 관계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Robert Kegan,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94).

29) Gregor T. Goethals, *The Electronic Golden Calf: Images, Religion, and the Making of Meaning* (Cambridge,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1990), 1.

30) Margaret R. Miles, *Image as Insight: Visual Understanding in Western Christianity and Secular Culture* (Boston: Beacon Press, 1985), 144.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미지를 통한 앎은 “시각을 통한 이해(to understand through the eyes)”³¹⁾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과 창조를 필요로 하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언어적, 추상적 앎이 가지는 단편성과 편협성을 극복하는 적극적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미지가 문자보다 의사소통의 문화에서 우위에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문자의 이해에서 이미지의 경험으로의 인식론적 확장은 성경 읽기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발라톤의 단순한 선으로 표현된 일러스트레이션은 이미지가 촉진시키는 상상력의 범위를 한층 넓혀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제 이해하는 성경에서 감동하는 성경으로 성경의 성격이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문자의 이해가 내용에 대한 객관성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면, 이미지의 경험은 내용에 대한 개인적 친밀감의 증진을 통하여 주관적 경험이 인지와 감성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준다.³²⁾ 이러한 경험은 앎에서 삶으로 인식에서 행동으로의 전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게 되며, 바로 이 같은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획득되어야 하는 생동하는 통전적 앎이 될 수 있는 것이다.

6. 결론: 대한성서공회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의 평가와 제언

매체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체의 다양화는 인식의 통전화 가능성을 하는 것이다. 문자에 이미지가 포함된 대한성서공회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매체의 다중화를 통해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경험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별히 본 성경에 이미지를 제공한 애니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매체 다중화가 가져다주는 경험공간의 확장을 위해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지는 단순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가지며, 일러스트레이션이 본문을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본문을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성서공회는 발라톤의 일러스트레이션에 채색화 작업을 통하여 문화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이미지 경험의 폭을 넓혀 주었다. 즉 문자의 이해에서 이미지의 경험을 촉진시키는 성경의 출현을 이끌어낸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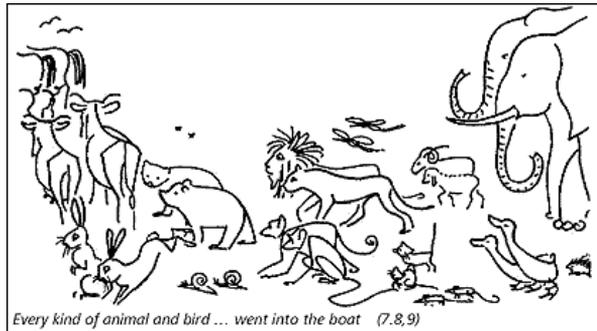
31) Ibid., 154.

32) Gary R. Rowe, “Publishing Words and Images: Schools and Learning in the Millennial Shift,” Soukup and Hodgson, eds., *From One Medium to Another*, 29.

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한성서공회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은 성경 읽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멀티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 문화 속에서 성경의 형태는 지속적인 변형(morph)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성경도 멀티미디어 의식(multimedia consciousness)으로 변화된 독자들의 인식 양태에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서학자들과 제작자들은 멀티미디어 기술(multimedia technology)을 통한 성경의 매체 변형도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구술에서 필사로, 필사에서 인쇄로, 인쇄에서 전자로 진행 된 매체의 진화가 직접적이고 통전적인 형태로 즉 의사소통의 원형적 모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지할 때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 * * * *



(그림 3)

끝으로 다양한 매체의 복합적 적용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통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임을 주지하면서 애니 발라톤이 묘사한 방주로 들어가는 각양각색의 피조물들의 장면을 제시해 본다. (그림 3)

* 주요어

성경 일러스트레이션, 인식론, 멀티미디어 기술, 멀티미디어 의식, 이미지.

Bible Illustration, epistemology, multimedia technology, multimedia consciousness, image.

* 참고문헌

-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새번역 컬러 일러스트레이션』 출시” KBS Publishing Experience (n. d.). 미출판 문서.
- American Bible Society, *Futuring the Scriptures: The Bible for Tomorrow's Publics*,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n. d., [Report on symposium of the same title on February 6, 1999, at Bible House New York City].
- Boomershine, Thomas E., “Religious Education and Media Change: A Historical Sketch,” *Religious Education* 82 (Spring 1987), 269-278.
- Carlgren, Frans, *Education Towards Freedom*, East Grinstead, England: Lanthorn Press, 1993.
- Bruner, Jerome,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Fowler, Robert M., Edith Blumhofer, and Fernando F. Segovia, *New Paradigms for Bible Study: The Bible in the Third Millennium*,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4.
- Geothals, Gregor T., *The Electronic Golden Calf: Images, Religion, and the Making of Meaning*, Cambridge, Massachusetts: Cowley Publications, 1990.
- Kegan, Robert,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1994.
- Kolb, David,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84.
- Metzger, Bruce M. and Michael D. Coogan, *The Oxford Companion to the Bibl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Margaret R. Miles, *Image as Insight: Visual Understanding in Western Christianity and Secular Culture*, Boston: Beacon Press, 1985.
- Miller, Ron, ed., *The Renewal of Meaning in Education: Responses to the Cultural and Ecological Crisis of Our Times*,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3.
-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New York: Methuen, 1982.
- Postman, Neil, *Television and the Teaching of English*,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961.
- Soukup, Paul A. and Robert Hodgson, eds., *From One Medium to Another: Communicating the Bible Through Multimedia*, Kansas City: Sheed & Ward, 1997.

Stage, Frances K., "Setting the Context: Psychological Theories of Learning,"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7: 2, 227-235.

Wosh, Peter J., "Today's English Version and the Good News Bible: A Historical Sketch," <http://www.bibleresourcecenter.org/vsItemDisplay.dsp&objectID=53959739-C885-40DB-89882562B8FB37CD&method=display> (2005년 6월 21일 접속)

<Abstract>

An Epistemological Study on the Korean Bible Society's *New Translation Color Illustrated Bible*: From Understanding the Word to Experiencing the Images

Prof. Young-lae Kim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llustrations in the Bible take various forms, from fine art to caricature. The use of illustrations is primarily to increa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text by providing visual images. Images provide not only references for the contents but also experiences of the aesthetic aspects of the stories for Bible readers. In history, the visual matter in such illuminated manuscript Bibles has generally consisted of three kinds: illuminated initial letters, particularly the first word of a book, often merely formal but sometimes representing more or less relevant scenes; decorative borders with flowers, scrolls or beasts, usually not closely related to the texts; and miniature pictures representing scenes in the text. The illustrations shown in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Color Illustrations* produced by Korean Bible Society (2004) have creatively modified the drawings of Annie Vallotton. Her simple illustrations for this version originally appeared in the *Good News Bible*. She provides 551 line drawings of figures dancing, praying, fighting and raising the dead. They depict not only the scripture, but the publisher's philosophy that the Bible should be accessible and enjoyable. This new version of the Bible opens up wide the possibility for readers' grasp of the whole meaning of the B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Color Illustrations* from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from understanding the word to experiencing the images. It will present a brief historical sketch of the illustrated Bible for discussion, and will study the unique illustrations of Annie Vallotton in terms of her distinctive styl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cognizance will be considered, in order to discover the process of change from words to images and from understanding to experience. The study will conclude with an evaluation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with Color Illustrations* and suggestions for biblical scholars and producers of Bibles.